5일 Market Index
코스피 5383.80 (-300.00)
코스닥 678.41 (-36.54)
금리(국고채 3년) 3.669 (-0.045)
환율(원-달러) 1342.1 (+0.6)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하나금융그룹

美 선거 후폭풍… 환율·투자 셈법 복잡

韓 경제 덮친 블루 쓰나미

美 국채 금리 빠르게 하락
중동사태 종전 기대 유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지속
중장기적으로 안정화 전망



증시·삼전닉스 동반 하락 '블루쓰나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락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시장에서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5일 국내 증시의 두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뉴시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블루 쓰나미'를 일으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법안의 변동도 예상되고 있어서다.

◆ 민주당 상·하원 석권…유가·금리↓

5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 미 민주당은 미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모두 확보했다. 〈관련기사 3면〉

미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확보하는 '블루 쓰나미'가 현실화하자, 미 국채 금리는 빠르게 하락(채권값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규모 감세안과 연방정부의 대규모재정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서다. 지난달 5일 약 5.31%까지 올랐던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중간선거 결과를 반영해 지난 4일(현지시간) 약 4.9% 수준까지 내렸다.

중동사태의 종전이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도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를 끌어내렸다.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일보다 7.97달러(8.29%) 내린 배럴당 88.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환율 변동성 지속

달러는 약세 전환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다. 5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보다 0.6원 오른 달러당 1342.1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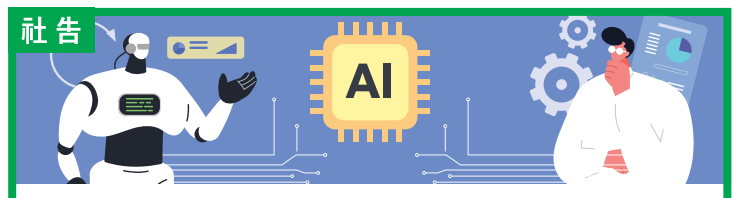
달러값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간선거 결과) 달러 약세 요인이 많아지면서 원화는 강세 압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라면서도 "선거 결과 AI 데이터센터 증설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는 메모리 수요 증가세 둔화 전망으로 연결됐고, 국내 반도체 주식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원화 약세의 요인이 되는)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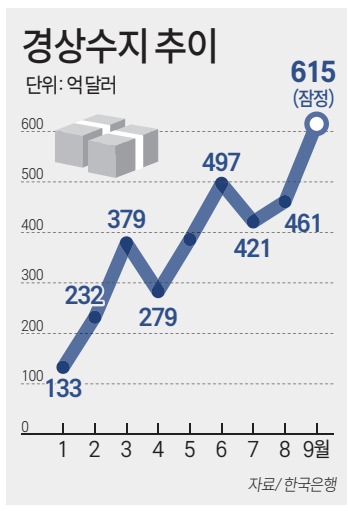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3개월 치 경상흑자, 작년 1년분 넘어섰다

한은, 9월 국제수지
월간 경상흑자 614.6억 달러
반도체 수출 31%, 가격 182%↑



올 3분기에 우리나라가 석 달 동안 낸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한 해 흑자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고 가격이 큰 폭으로 뛴 데다 분기 말 납품까지 집중되면서 9월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10월에도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5일 한은이 발표한 '2026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 흑자는 614억6000만달러로, 지난 6월의 종전 최고치(497억3000만달러)를 넘어섰다. 3분기 흑자는 1496억5000만달러였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흑자(1230억5000만달러)보다 266억달러 많다.

신기록을 이끈 것은 상품수지였다. 9월 상품수지 흑자는 627억5000만달러로 8월보다 159억4000만달러 늘었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 수출이 1년 전보다 92.4% 늘어난 1307억2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용선료 지급이 늘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적자가 커지면서 서비스수지 적자도 8월 16억8000만달러에서 9월 33억5000만달러로 확대됐지만, 상품수지 개선 폭이 이를 웃돌았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9월 반도체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30.5% 늘고 가격은 182.1% 올랐다며 가격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흑자 전망치를 5월 2500억달러에서 8월 4500억달러로 높였다. 1~9월 누적 흑자는 3406억6000만달러로 5월에 내놓은 연간 전망치를 이미 900억달러 넘게 웃돌았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수출 호조를 근거로 올해 경상흑자가 8월 전망치인 4500억달러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8일 한은은 4500억달러에 도달하려면 9월부터 연말까지 월평균 약 426억달러의 흑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월 실적을 반영하면 남은 석 달에 필요한 흑자는 월평균 약 365억달러다. 3분기 월평균 실적(약 499억달러)보다 27% 적은 규모다.

김 국장은 10월 경상흑자가 9월보다 줄더라도 월간 기준 역대 2위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11월에는 증권투자 관련 분기 배당 지급이 집중된다. 앞서 8월 11억8000만달러였던 배당소득수지 흑자는 분기 배당 지급의 영향이 잦아든 9월 22억4000만달러로 늘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규제 풀고 AI융합 'K-바이오' 혁신"

정부·바이오 산·학·연 한자리
과감한 R&D투자확대 등 제시

대한민국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의 뒤를 잇는 '넥스트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과 지원 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민국 넥스트 엔진: 바이오 대혁신, 국가미래성장을 잇다'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K바이오 3대 성장 축으로 ▲과감한 R&D 투자 확대 ▲AI·데이터 융합 ▲규제·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신약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허가받은 신약 중 개발 비용을 건지는 비율은 20%에 불과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기업의 끊임없는 도전과 함께 혁신 성과의 가치를 인정하는 합리적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라는 민관협력이 어우러져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눈먼 돈 주면 안 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묵현상 뉴패스바이오 대표는 현행 바이오 R&D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짚으며 '투자와 회수'를 촉구했다.

묵 대표는 "현재 K바이오는 정작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임상 2상, 3상 단계에 진입할 자금은 부족해 초기 단계에서 해외에 기술을 저가 매각(라이센스 아웃)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6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글로벌 7개사 20억달러 투자…지역 청년들에게 기회 열어주길" /사진 뉴시스

▲사법부도 한숨 쉬는 '조작기소 특검법'…"자칫 수사·기소 무효"

▲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與 "채무 감소 기여" 野 "빚 늘려 쌓을 것"

▲정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 연속 참여

▲"20~49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2028년 시행 추진

▲'쉬었음' 청년 줄었지만…최악 취업난에 실업·자영업 내몰려